

김춘수 시 연구의 현황과 전망

이강하(전북대학교)

1. 서론

대여 김춘수(1922~2004)는 한국 현대시문학사를 가장 충실하게 증거할 수 있는 시인 중 한 사람이다. 김춘수 그 자신의 문학적 경험과 그를 둘러싼 논의들은 한국 현대 시문학사의 주요한 쟁점들을 종합하고 있다.¹⁾ 1946년 『해방 1주년 기념 사회집』에 작품을 발표하면서 시작된 그의 문학적 이력은 작고 직전인 2004년 『김춘수 시(시론포함) 전집』을 감수하기까지 현대시사의 흐름을 주도하면서 전개되었다.²⁾ 김춘수의 시와 시론이 가지는 시사적인 가치는 단순히 그 양의 방대함이나 그의 문단에서의

1) 김현은 김춘수를 서정주, 김수영과 함께 해방 이후 시사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친 시인으로 규정했고(『한국문학사, 민음사, 1973), 김준오는 참여시와 대립하는 순수시의 기수로 김춘수의 시사적 위치를 확인시켰고(『한국현대문학사』, 현대문학, 1989), 김용직은 김춘수를 해방 이후 등단한 시인 중에 가장 견고한 언어를 구사하는 시인으로 평가했고(『해방기 한국 시문학사』, 민음사, 1989), 권영민은 1960년대 이후 형식과 기법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대다수의 시인들이 김춘수의 영향을 받았다고(『한국현대문학사』, 민음사, 1993) 기술했다.

2) 김춘수는 생몰기간 동안 시집 및 시선집 24권, 수필집 및 소설 6권, 시론집 8권, 전집 4권을 출간하였다. 『기획특집 / 제2차 한국문인 실태보고서』(『문학사상』, 2002년 6월)에 의하면 1986년 이후 가장 많은 시를 발표한 시인으로 김춘수가 선정되었다. 다른 다작 시인들과의 비교에서 김춘수 문학이 돋보이는 까닭은 창작 방법론의 긴장이 작고 직전의 시까지 팽팽하게 고조되고 있다는 점이다.

위치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다. 김춘수는 장구한 문학활동 기간 동안 한 순간도 고정된 시 형태나 시 정신에 안주하지 않고³⁾ 탐색을 멈추지 않는 시인으로서 부단한 자기부정을 통한 시 쓰기의 방법론을 모색하며 현대시의 문제적 담론들을 생산하였다.

김춘수의 문학적 경험은 해방 이후부터 현 시점까지 현대사와 문학이 상호접촉하는 문화사회학적인 국면, 서구의 근대가 비자율적 상황에서 받아들여진 이후 한국문학에 반영되고 갱신되는 양상, 현대문학비평의 갈래와 흐름, 그가 계승한 해방 이전의 시문학사의 계보와 그 이후 그의 궤적을 따르는 문예사조적 계보, 동서양의 정신사적인 차이와 같음, 창작 방법론과 시론, 비교문학 및 학제간 연구 등 동시대의 거장인 서정주나 김수영을 통해서도 추출할 수 없는 문학사를 적시해 준다.

김춘수에 대한 연구는 작품과 시론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다층적인 차원에서 김춘수를 ‘들러싸고’ 전개되고 있다. 김현의 『존재의 탐구로서의 언어-김춘수론』(『세대』, 1964. 7.) 이후로 현재까지 이루어진 방대한 양의 연구들은 특정한 경향을 명시하기 힘들 정도로 비평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다.⁴⁾ 현재까지 박사논문 26편, 석사논문 67편, 그 외의 학술지 논문이 100편을 상회하는 것으로 확인된다.⁵⁾ 특히 시인의 작고 이후에는 그 동안 축적된 연구방법론에 대한 반성적인 비평 등이 진행되고 있는 현황이다. 이 글은 김춘수 문학연구의 자료 현황을 제시하고 향후의 연구방향의 지향점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개별 텍스트의 분석이나 특정한 방법론의 사용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3) 남기혁, 「김춘수 전기시의 자아 인식과 미적 근대성」, 『한국시학연구』1, 1998, 64쪽.

4) 김춘수가 의식적으로 참여문학에 대해서 거부를 표명하였던 만큼 그가 경도되었던 모더니즘과는 상반된 경향인 리얼리즘 비평에서도 안티적인 입장, 또는 현실세계의 부정이라는 인식론적 공통성을 기반으로 그에 대한 연구가 전개되었다.

5) 이 정보는 ‘KERIS 학술연구정보서비스(<http://www.riss4u.net>)’, ‘DBPIA(<http://www.dbpia.co.kr>)’, ‘국회도서관(<http://www.nanet.go.kr>)’의 검색정보를 종합한 것임. (검색어 : 김춘수, 모더니즘, 현대시론, 무의미시, 처용)

2. 본 론

통상적으로 한 작가의 연구를 위해서 선행되는 작업에는 시기구분과 연구사의 범주화가 있다. 김춘수의 경우 시기구분은 비교적 명확하게 정리되고 있다. 대개 이승훈⁶⁾식의 구분방법과 정효구⁷⁾식의 구분방법을 원용하고 있다. 이승훈은 김춘수의 시 연구의 대표적인 논자로서 각 기점마다 시기구분을 행하고 있는데, 그것을 종합해 보면 ‘존재의 추구와 탐구기’, ‘순수한 이미지의 추구기’, ‘리듬이 환기하는 적나라한 실존에의 몰입기’, ‘예술과 종교에 대한 성찰기’, ‘동양적 시선을 통한 서양적 삶의 성찰기’, ‘포스트모더니즘 기법의 실험기’의 여섯 단계로 그 문학전기를 구분할 수 있다. 이 구분법을 참조한 이창민⁸⁾은 각각의 시기를 표현양식으로 대치하여 다음과 같이 나타냈다.

<표 - 1>

연번	시기	해당시집	표현양식
1	1948~1954	『구름과 薔薇』, 『눈』, 『旗』, 『隣人』, 『第一詩集』	감상적 낭만주의
2	1954~1959	『꽃의 素描』, 『부다페스트에서의 少女의 죽음』	관념적 실존주의
3	1959~1969	『打令調 其他』	유희적 순수주의
4	1969~1980	『處容』, 『狼山の 樂聖 白結先生』, 『金春洙詩選』, 『꽃의 素描』, 『南天』, 『비에 젖은 달』	신화적 상상주의
5	1980~1992	『라틴點描 其他』, 『사갈의 마을에 내리는 눈』, 『處容斷章』, 『돌의 불에 불을 대고』	예술적 도피주의

- 6) 이승훈, 『존재의 기호학』, 『문학사상』, 1984. 8.
 _____, 『처용의 수난과 통사구조의 해체』, 『현대시사상』, 1992. 봄.
 _____, 『포스트모던즘의 지적 기법: 김춘수의 『처용단장』 3부와 4부를 중심으로』, 『모더니즘 시론』, 문예출판사, 1995.
- 7) 정효구, 『김춘수 시의 변모 과정 : 창작방법론을 중심으로』, 『20세기 한국시와 비평정신』, 새미, 1997.
- 8) 이창민은 각각의 표현형식에 대응되는 창작방법으로 ‘정조 표현과 형식 조작’, ‘릴케 시 변형과 개념어 구사’, ‘서술적 상상 구축과 돌발적 비유 조성’, ‘설화 변형과 연작 구성’, ‘비평적 서술과 자전적 기술’, ‘자기 표절과 혼성 모방’을 각각 설정하였다.
 이창민, 『김춘수 시연구』, 고려대 박사, 1999.

연번	시기	해당시집	표현양식
6	1992~1999	『서서 잡자는 숲』, 『金春洙 詩全集』, 『壺』, 『들림, 도스토예프스키』, 『의자와 계단』	폐쇄적 기교주의
인용 자	2001	『거울 속의 천사』	
	2002	『선한 편의 悲歌』	

정효구는 위의 표에서 1~3까지 해당하는 시기를 제1시기로, 4~5까지를 제2시기로, 나머지를 제3시기로 구분하고 각각의 단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변증법적인 의식의 흐름과 시작방법의 변모양상을 고찰한다. 제1시기는 존재의 의미 찾기와 의미 부여의 특징을, 제2시기는 언어에 대한 허무적인 양상과 언어 자체를 부정하는 이미지에 경도된 특성을, 제3시기는 구체적인 현실세계를 수용한 산문시의 창작 경향을 드러낸다고 고찰한다. 정효구의 구분 방법은 무의미시를 기점으로 전후의 맥락을 살피는 것으로서, 변모양상을 규명하고 있는 대부분의 논자들⁹⁾이 택하고 있는 시기구분 방법이다. 언급한 이승훈의 구분방법도 사실상 ‘무의미시’가 전후기 구분의 중심기점이 되고 있다.¹⁰⁾

이견이 없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구분방법¹¹⁾은 김춘수 시와 연구사를 이해하는 데 유용하다. 김춘수 연구는 그의 시작방법과 동일한 연대기적 궤적을 따라서 전기에는 존재론적인 시연구, 중기에는 무의미시와 무의

9) 김두한, 「김춘수 시 연구」, 대구효성여대 박사, 1991.

이기철, 「김춘수론」, 『한민족어문학 영남어문학』22, 한민족어문학회, 1992.
신상철, 「김춘수의 시세계와 그 변모」, 『현대시의 연구와 비평』, 새미, 1997.

최라영, 「김춘수 무의미시 연구」, 서울대 박사, 2004.

이민정, 「김춘수 시연구」, 경원대 박사, 2006.

10) 이승훈은 김춘수시의 일관된 특성을 ‘존재의 경도’로 보면서 초기 시편들은 ‘이데아의 세계’를 탐구했던 존재론적 시로 보고 『打令調』 이후의 후기 시편들은 형언할 수 없는 갈망의 표출인 ‘무의미시’로 보았다.

이경철, 「김춘수 시의 변모양상」, 『동양어문집 제23집』, 253쪽.

11) 무의미시의 처음과 끝의 기점은 김춘수가 시론이나 대담을 통해서 피력한 바가 있어서 거의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정민구, 「김춘수 시의 무의미성 연구」, 전남대 석사, 2007, 1~3쪽 참조.

미 시론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 후기에는 변모양상 및 후기시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 졌다. 그러나 2008년에 작성된 논문에서조차 『김춘수 시전집』(2004, 현대문학)에 수록된 2000년 이후의 작품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에서 시기구분은 다시 종합적인 측면에서 고찰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2000년 이후에 출간된 작품집 『거울 속의 천사』(민음사, 2001)와 『신한 편의 비가』(현대문학, 2002)가 이전의 것과는 변별되는 새로운 국면의 시적 긴장과 유희를 선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시기구분은 재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김춘수 문학연구의 범주는 단순하게는 공시적인 측면과 통시적인 측면으로 나눌 수 있다. 공시적인 측면의 연구는 앞서의 시기구분인 ‘무의미시 이전- 무의미시 - 무의미시 이후’의 작품들에 대한 시기별 연구이다. 통시적인 연구는 각 시기 간의 변모양상을 고찰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범주화는 상당수의 연구가 ‘무의미시’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편의적일 수밖에 없으며 다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김춘수 연구의 범위를 축소시킨다.¹²⁾ 또 다른 방법으로 시인의 의식지향에 따른 범주화, 정신사적인 입장에서의 범주화(인식론, 심리학, 이미지), 문예사조에서 소급한 범주화(모더니즘, 한국시의 계보, 비교문학, 시론), 문학주체에 따른 범주화(텍스트 본위, 작가 본위, 독자 본위) 등이 논자의 목적에 따라서 행해지고 있다. 그러나 어느 범주화도 명확하게 경계를 나누지 못하고 자기논리와 관계된 범주만을 집중적으로 관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유는 논문에 있어서 범주화의 문제 자체가 주변적인 것이고 김춘수 문학 연구가 경계의 장벽 없이 거의 모든 분야를 횡단하며 때로는 일원론적인 가치의 기준으로 평가되고, 때로는 다원론적인 방법론이 동원되어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범주화의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귀납적인 방법을 사용할

12) 김춘수 시 연구에 관한 논의는 모두 직간접적으로 ‘무의미시’, ‘차용’, ‘존재론’에 관련되어 있다. 한편 이를 기준으로 하는 연구사 검토는 계속해서 중복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것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는 동일한 하위범주가 연속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그 하위범주를 기준으로 범주화를 실행했음을 밝힌다.

것이다. 이러한 방법은 이 글의 성격이 자료제시형의 성격을 갖는 만큼 후행 연구자들이 자료검색이나 동향과약을 용이하게 하기 위함이다. 탈 경계의 비평방법이 동원되는 상황에서 선부른 범주화는 오히려 혼란만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판단이 전제되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어떤 선행연구의 범주화 방법도 따르지 않고 실용적인 목적의 자료제시를 위해서 되도록 세분화해서 그동안 축적되어져 온 김춘수 문학연구를 제시해 보겠다.

<표 - 2>¹³⁾

범주			공시성	통시성
변모양상			박은희(1999), 정효구(1996), 이경철(1988), 이민정(2006), 이기철(1992), 김두한(1992), 남기혁(1998), 이창민(1999)	
이미지 분석			오택근(1999), 현승춘(1996), 문혜원(1995), 권기호(1982)	이영섭(2004), 정미혜(1995), 손자희(1983), 송승환(2008)
기호학			정유화(1991), 임수만(1996)	김광엽(1994)
수용미학			김영미(2004)	
신화적 상상력			김혜순(1983), 임문혁(1991),	김종태(2003), 이명희(2002)
창작방법론	수사법		김두한(1986), 오형엽(2006)	
	시의식 및 동기		이경교(1998), 강은교(1996), 이진홍(2001)	
	소재, 인물		박선희(1988)	오정국(2000)
	종합		류순태(2007)	
시론연구			황동규(1977), 김준오(1990), 김인화(1984), 남기혁(1999), 오세영(2004), 이승훈(1993), 최라영(2004), 박윤우(1992) 박철희(1982)	이형권(1998)
상화텍스트성	김수영과의 비교	시론	최동호(2008), 이광호(2005), 오형엽(2002), 김승구(2005), 이 찬(2004)	
		모더니티	이은실(2008), 박미경(2008)	

13) 자세한 서지사항은 참고문헌을 참조.

범주		공시성	통시성
	시작법	노철(1998), 박종원(2005)	
	개별작품	장소원(2007)	
	담론	조두섭(2001)	이민호(2000)
	종합	이은정(1998), 김의수(2002)	강영기(2003), 조강석(2008)
	다른 시인들과의 비교	이인영(1999),	박은희(1999)
	비교 문학	이승옥(1999), 정선아(2007), 김미자(2007), 김용하(2003), 김재혁(2001)	김은정(1999)
학제간 연구		지주현(2008), 진수미(2008), 양인경(2008), 정끝별(1997)	윤호병(2001)
종교관련 연구		이민호(2006), 이진홍(1997), 손진은(1992)	조명제(1998)
존재론적 연구		문혜원(1994), 박경옥(1998), 이진홍(1981), 김용태(1986), 조달곤(1982), 이승훈(1972), 김 현(1964), 채종한(2001), 조명제(1987, 1988)	강연호(1994), 진순애(1999), 조명제(1988), 이형권(1998)
정신분석		최창현(2003), 김창근(1986), 이성희(2007), 김 현(1970), 최하림(1976), 장윤익(1982)	전미정(1997), 서진영(1998), 권 온(2007)
정치·사회학		이동하(1989)	
생태주의		진창영(2001), 엄정희(2004)	

이 글의 목적이 특정한 논지를 전개하는 것이 아닌 만큼 위의 범주화 방법은 정보제공의 차원에서 귀납적인 방법을 사용하였다. 기존의 논의에서는 김현, 이승훈, 김준오, 김인환 등 김춘수 문학과 친연성을 갖는 논자들의 선행연구를 친편일률적으로 반복하고 있다. 본 글에서는 가급적이면 기존에 언급된 논의의 중복을 피하고 기존 논의를 수렴하여 발전시킨 박사논문과 최근의 학술지 논문 위주로 살펴보겠다.¹⁴⁾

김두한¹⁵⁾은 김춘수 시문학의 범주를 ‘무의미시 이전의 시’, ‘무의미시’,

14) 순서는 <표 - 1>의 내림차순에 의해 진행됨.

15) 김두한, 앞의 글.

‘무의미 이후의 시’로 각각 나누어 논지를 전개한다. 김춘수 관련 최초의 박사학위 논문 작성자로서의 그의 범주 구분은 이후의 연구자들에게 있어서 일종의 전범으로 사용되고 있다. 무의미시 이전의 시는 대상을 해독한 정서적 의미나 관념적 의미를 감각화한 것이다. 이 때 대상은 의미에 의하여 변형되며, 시와 대상은 의미를 매체로 간접적으로 연결된다. 무의미 시는 심상주도형과 리듬주도형으로 구분되는데, 전자는 각 행들의 통사적인 규칙은 무시되고 전체로서의 의미만 부각되는 추상화의 기법을 따르고 있으며 후자는 심상의 소멸 뒤에 오는 리듬이 지배인자인 시로서 시니피앙의 흐름으로 이루어져 있다. 무의미시 이후의 김춘수의 시는 존재론적 역설의 세계관 위에 쓰여진 시로서 무의미시 이전의 시와 무의미시의 변증법적 지양태로서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민정¹⁶⁾ 역시 김두한과 동일한 통시적 구분을 사용하여 초기시에서부터 ‘무의미시’를 거쳐 후기시까지의 시세계를 총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김춘수 시는 초기시에서부터 후기시에 이르는 ‘무의미’의 단계는 세계와 자아간의 소통에 대한 물음 → 비소통 → 소통이라는 관계양상과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이미지 분석 분야에서 송승환¹⁷⁾은 무의미시의 개념이 발생시킨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물시의 개념을 중심으로 김춘수의 시를 연구하였다. 김춘수가 제시한 시론을 참조하였던 무의미시의 분석 방법론에 대해서 의문-시론에 의존적인 무의미시의 분석이 무의미시의 개념에 혼란을 가중시켰다 -을 제기하고 오페르트(Kurt Oppret)가 처음 사용한 사물시(Dinggedicht)의 개념을 원용하였다. 김춘수가 명명하고 지향한 ‘무의미시’는, 본래 사물의 물질성을 탐구하고 사물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묘사하려 했다는 점에서 사물시의 개념에 속한다. 문혜원¹⁸⁾은 김춘수 시가 비유적 이미지에서 서술적 이미지로 옮겨가는 과정을 검토한다. 이데아에

16) 이민정, 앞의 글.

17) 송승환, 「김춘수 사물시 연구」, 중앙대 박사, 2008.

18) 문혜원, 「김춘수의 시와 시론에 나타나는 이미지 연구」, 『한국현대문학연구 한국의 현대문학』3, 한국현대문학회, 1994.

대한 동경은 ‘꽃’을 위시한 비유적 이미지로 드러나고 이데아에 대한 포기는 ‘무의미시’의 창작방법론으로 드러난다. 이러한 이미지의 변모는 예술의 효용론적인 가치에서 윤리나 의미에서 벗어난 ‘놀이로서의 예술’로의 정신사적 변모에 대응한다. 한편 오택근¹⁹⁾은 김현²⁰⁾, 신정순²¹⁾, 손자희²²⁾, 김현자²³⁾의 김춘수 시에 대한 상상력 논의를 수렴하면서 김춘수 ‘물’의 이미지에 갖든 원형적 상상력을 추적하고 있다. 김춘수 시의 이미지 분석은 최근에는 회화와 영상의 분야에서 더욱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양상이다.

기호학 연구의 대표적인 논자로는 김광엽²⁴⁾을 들 수 있다. 특히 이 논문은 텍스트 안팎의 논의들을 수렴하고 있어서 기존의 폐쇄적인 기호학 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있다. 김광엽은 육사와 청마와 김수영과 김춘수의 시를 공간 개념의 관점에서 비교·대조하여 공식적으로는 각 시인의 공간의 위상학을, 통시적으로는 상호텍스트의 계보학을 작성하여 한국현대문학의 좌표를 그리고 있다. 각 시인 모두 민족적 터전과 정체성을 잃어버린 비극적이고 억압적인 현실을 토대 위에서 창작을 했으며, 시인의 의식이 집약된 창작물을 통해서 공간적 상상력을 개진한다. 육사는 식민지의 역사적 상황을 초월적 현재공간으로 확인하고, 청마는 도피한 공간을 생명의 공간으로 가장하고, 김수영은 역설과 아이러니를 통하여 역설적 폐쇄공간을 상징하고, 김춘수는 역사로부터의 도피를 개방공간으로 착각한다. 청마와 김춘수는 자아와 세계와의 대결 국면에서 세계에 대한 도피, 세계에 대한 굴복 또는 외면이라는 점에서 동질성을 갖는다. 세계에

19) 오택근, 「물의 원형상징 연구」, 『우리어문연구』12, 1999.

20) 김 현, 「꽃의 이미지 분석」, 『문학춘추』, 1965. 2.

_____, 「식물적 상상력의 개발」, 『현대시학』, 1970. 4.

_____, 『상상력과 인간』, 일지사(서울), 1975.

21) 신정순, 「김춘수 시에 나타난 빛·물·돌의 이미지와 상상력의 질서」, 이화여대 석사, 1981.

22) 손자희, 「김춘수 시 연구-이미지 중심으로」, 중앙대 석사, 1983.

23) 김현자, 『시와 상상력의 구조』, 문학과 지성사, 1982.

24) 김광엽, 「한국 현대시와 공간 구조 연구: 청마와 육사, 그리고 김춘수와 김수영을 중심으로」, 서강대학 박사, 1994.

대한 청마의 무행위는 김춘수의 무의미로 탈바꿈 하게 된다. 세계와의 관계가 단절될 때 세계는 의미로부터 단절되고 시적 자이는 시적 공간 안에서 행방을 차차 감추면서 ‘처용’의 설화공간에 의지하게 된다. 공간투쟁과 공간확장의 주체인 ‘나’의 사물화는 세계 내에서의 현존재의 불안을 외면하는 ‘나’의 방법론적 전략이다. 김광엽은 참여시로 대변되는 육사와 김수영을 갈등의 시학으로, 청마와 김춘수의 시학을 화해의 시학으로 결론짓고 있다. 공간기호학을 『처용단장』에 국한시켜서 적용하고 있는 정유화²⁵⁾는 ‘바다’와 ‘감옥’을 『처용단장』의 지배소로 설정한다. ‘바다’와 ‘감옥’은 각각 공간의 ‘상승/하강’이라는 대립되는 공간기호를 창출한다. 두 지배소의 대립성은 『처용단장』에 역동성을 부여하고 ‘무의미시’의 모호함과 다의성을 창출한다.

김영미²⁶⁾는 김춘수의 「처용단장 제1부」를 중심으로 무의미시가 독자에게 어떻게 읽혀질 수 있는가를 수용미학의 입장에서 살펴보았다. 「처용단장 제1부」은 중첩서술과 병치의 장치로 인해서 독자가 텍스트를 읽고 의미를 만드는 데 좌절하도록 만든다. 독자는 재독을 통해서 끊임없이 의미를 만들어 가는데, 이 과정에서 제목은 시적 의미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그것은 독자로 하여금 ‘처용’을 이 시의 화자로 인식하게 하고, 이 시를 처용의 발화로 읽히도록 유도한다. 김영미의 논의는 김춘수 연구를 전례 없이 독자반응의 차원까지 확장시킨 의의는 있으나, 수사법이나 시작법의 범주에서 논의를 전개시키는 방법이 오히려 더 적확했을 것이라고 판단한다. 왜냐하면 김영미 논지의 핵심은 시제(詩題)와 본문과의 수사학적인 영향관계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그가 본문 내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텍스트와 독자의 양자의 교섭작용’보다 작가에 의해 그 효과가 결정되고 예상되는 텍스트 내부의 수사학적인 장치에 더 가깝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김춘수는 시작법²⁷⁾을 통해서 제목과 본

25) 정유화, 「탈이념의 자족적 폐쇄공간 - 김춘수의 <처용단장>을 중심으로-」, 『어문연구』111,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1.

26) 김영미, 「무의미시의 독자반응론적 연구」, 『국제어문』32, 국제어문학회, 2004.

문의 상호작용을 상술한 바 있다.

신화적 상상력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이 공시적인 연구로서 ‘처용’과 관련된 연구이다. 이명희²⁸⁾는 김춘수가 현실세계에서는 극복할 수 없는 허무의식을 신화적인 상상력으로 대응하여 억눌린 역사를 구원하려는 의지를 보인다고 한다. 이명희의 논의는 ‘무의미시’에서 최소한의 의미만을 찾고 주로 형식논의가 주를 이루고 있는 김춘수 비평의 흐름에서 신화적 상상력의 능동적인 현실 대응력을 간과하고 있어서 주목된다. 이와 비슷한 논의로 김종태²⁹⁾의 연구가 있다. 김종태는 텍스트 분석에 앞서서 ‘처용설화’의 상이한 해설들과 변이태를 추적하고 한국문학에서 ‘처용’이 응용된 양상을 살펴면서 김춘수의 ‘처용’이 갖는 위상과 의의를 확립하고 있다. 김종태의 연구는 통사구조 속에 숨겨진 내적 의미를 규명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일반적으로 ‘무의미시’의 범주에 속하는 ‘처용’ 연작을 ‘유의미시’의 관점에서 해부하고 있는 점이 특별하다. 김춘수는 「처용」, 「처용삼장」, 「처용단장 I 부」, 「처용단장 II 부」를 통해서 자신이 당한 역사적 폭력과 삶의 비극성을 ‘처용’의 설화적 의미에 투사한다. 김춘수 ‘처용’의 변별성은 처용가의 영향을 받았으면서도 처용가의 범주를 뛰어넘는 신화의 현대적 변용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밖의 논의로 ‘처용설화’가 김춘수 초기 시에서는 원본의 성격을 가지다가 후기시에 이르러 단지 시·공간적 배경만을 차용하는 탈설화적 양상을 보인다는 임문혁³⁰⁾의 논의가 있다.

김춘수 시의 창작방법론은 연구사 초기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 김춘수 연구의 주요 분야이다. 그동안 시작법 연구는 김춘수의 시론에 의존한 연구, 모더니즘 시론에 의거한 김수영과의 대비적 고찰, 수사학적인 장치에의 천착, 처용·예수·이중섭 등 창작 모티브 연구 등에 경도되었었다. 노철³¹⁾은 그동안의 방법론을 일신하면서 김춘수와 김수영의

27) 김춘수, 「시론-시작법을 겸한」, 『시론전집』, 현대문학, 2004, 252~260쪽 참조.

28) 이명희, 「한국 현대시에 나타난 신화적 상상력 연구 : 서정주, 박재삼, 김춘수, 전봉건을 중심으로」, 건국대 박사, 2002.

29) 김종태, 「김춘수 처용연작의 시의식 연구」, 『우리말글』28, 우리말글학회, 2003.

30) 임문혁, 앞의 글.

시작 방법을 수사학적 관점을 배제하는 가운데 시인의 내면 인식과 전기적 사실을 토대로 미적 성취를 살펴보고 있어서 주목된다. 김수영은 자유에 대한 억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전통적 서정시를 탈피한 비시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김춘수는 역사적 폭력성에 대한 거부 의식으로 유희적 언어를 지향한다. 김수영은 사고의 흐름을 정직하게 표현하려는 반면 김춘수는 해체와 재구성을 사용한다. 김수영과 대별되는 김춘수의 이러한 특징은 첫째, 유년체험을 바탕으로 생겨난 유토피아 지향의식에서 기인한다. 현실세계에 벗어난 유토피아 지향의식은 순수한 절대 언어를 찾게 된다. 그 절대 언어가 무의미의 표상인 서술적 이미지다. 둘째, 언어의 표현 자체에 대한 불신에서 기인한다. 언어에 대한 불신은 대상의 기존형태를 해체하여 한 부분만을 취하거나 대상을 다른 환경에 배치하는 아이러니한 수사적 장치를 야기한다. 현대시사에서 독자적인 면모를 갖춘 김춘수의 이러한 시작 방법은 후배 시인들에게 지속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평가된다. 이 밖에 김두한³²⁾은 독일문학에서 사용되는 ‘회전율’의 개념을 도입하여 김춘수 시의 운율을 분석하였고 오정국³³⁾은 김춘수가 시의 소재로 ‘처용’, ‘이중섭’, ‘예수’ 등을 끌어들이는 이유와 그 인물들 간의 유기적 관련성을 밝히고 있고 강은교³⁴⁾ ‘처용’ 모티브와 그 보조 모티브의 분석을 통해서 김춘수의 시가 ‘유배시’의 전범을 보이고 있다고 밝힌다.

김춘수의 시론 연구는 시론 그 자체를 대한 분석보다는 김수영으로 대표되는 리얼리즘 시론과의 대비적 관점, 시창작을 통한 반영성 여부, 서구 모더니즘 시론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다. 최근의 논의로 이찬³⁵⁾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이찬은 조지훈, 김종길, 김수영, 김우창, 김춘수, 김현의 시론을 분석하면서 20세기 한국 시론의 계보와 지도를 작성하고 있다. 이찬의 연구가 주목할 만한 것은 20세기의 주된 지적 사조인 모

31) 노 철, 「김수영과 김춘수의 시작방법 연구」, 고려대 박사, 1998.

32) 김두한, 「김춘수 시의 회전율과 그 기능」, 『문학과 언어』7, 1986.

33) 오정국, 「김춘수 시의 인물에 관한 연구(Ⅰ)」, 『어문론집』30, 중국문화회, 2002.

34) 강은교, 「김춘수 시의 모티브 연구」, 『현대문학의 연구』7, 1996.

35) 이 찬, 「20세기 후기 한국 현대시론 연구」, 고려대 박사, 2004.

더니즘에 대한 계보와 연원을 검토하면서 한국 시문학사(시론사)의 분화와 자율의 국면을 모더니즘의 역사적 보편성과 지역적 특수성에 적절하게 투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찬에 의하면 모더니즘은 진선미에 대한 새로운 자각을 일깨우는데, 그것의 한국시론사에 대한 전개과정은 다음과 같다.

- 1) 유티론적 시학 : 전통적 규범성의 인식 수단으로서의 시적 언어: 진(선협적 진리) - 조지훈, 김종길
- 2) 초월론적 시학 : 잠재적 가능성의 실천 행위로서의 시적 언어 : 선(사회적 실천) : - 김수영, 김우창
- 3) 존재론적 시학 : 미적 자율성에 입각한 존재 창조로서의 시적 언어 : 미(예술적 구조) - 김현, 김춘수

김춘수와 김수영의 비교시론은 주로 그들의 모더니즘 대 리얼리즘이라는 시론의 대립성과 그에 대한 시 작품의 반영성의 밀도에 천착해 왔다. 오형엽³⁶⁾은 시론 자체만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시론 연구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김춘수와 김수영은 모두 시와 산문이라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시론을 출발한다. 시와 산문의 이분법은 무의미/의미(김춘수), 작용/서술(김수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분법적 지향에서 김춘수는 배제의 방식을, 김수영은 통합의 방식을 추구한다. 그 결과로 김춘수는 의미가 소거된 극단적인 서술적 이미지로 나아가고 김수영은 의미와 형식을 일치시키는 온몸의 시학으로 나아가게 된다. 오형엽은 이러한 현상을 ‘무의미 시론’의 양 극단으로 규정한다. 김춘수의 경우 의미가 제거되었고, 김수영의 경우 형식이 제거되었기 때문이다.

김춘수 시론의 단독 연구로는 오세영³⁷⁾을 논의를 꼽을 수 있다. 오세영은 김춘수 무의미 시론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을 가진 대표적인 논자이다. 오세영은 김춘수가 무의미 시론에 대해서 간접적이고도 애매한 해명으로

36) 오형엽, 「김춘수와 김수영 시론 비교 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16, 2002.

37) 오세영, 「김춘수의 무의미시」, 『한국현대문학연구』 15, 한국현대문학회, 2004.

논란만을 증폭시킨다고 지적한다. 무의미시론의 주요 개념이나 용어들은 초현실주의 시론에서 대부분 차용한 것인데, 그것 역시 왜곡되어 사용되고 있다. 엄격한 의미에서 김춘수의 무의미는 들뢰즈와 같은 후기 구조주의자들의 개념에 가깝지만 서구의 무의미시가 요구하는 이상적 상태와는 거리가 멀다. 다만, 서구의 초현실주의가 대부분 자동기술법에 의존하여 관념의 자유 연상을 중요시 하는 반면에 김춘수의 무의미시는 언어를 정제해서 사용하고 회화적 묘사가 강조된다는 점에서 변별성을 갖는다. 초현실주의의 아류라고까지 가혹하게 비판하는 오세영의 의견은 동일한 모더니즘 계열의 시인에게서 나온 발언이라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오세영과 비슷하게 김춘수의 시론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연구로는 황동규³⁸⁾의 논의가 있고 오세영이 언급한 바 있는 들뢰즈의 ‘무의미’의 개념을 활용하여 김춘수가 말하는 ‘무의미’를 밝히고 있는 최라영³⁹⁾의 논의가 있다. 최라영은 ‘무의미’가 ‘의미’의 맥락을 와해하지만 시의 의미적 차원에서 볼 때는 새로운 의미를 창조한다고 한다. 김춘수의 무의미시의 의미창조는 ‘상황적 무의미’, ‘언어의 무의미’, ‘범주적 이탈’, ‘수수께끼의 양상’의 전략을 통해서 실현된다. 김춘수의 시론이 자기 시에 대한 방향모색과 김수영을 위시한 리얼리즘 문학에 대한 대항적인 입지 구축을 위해 쓰였기 때문에⁴⁰⁾ 시론 연구는 그의 시와 불가분의 관계에서 논의될 수밖에 없는데, 시론과 시의 상호 반영성에 대한 평가는 극히 대조적⁴¹⁾이다. 이러한 이유는 시작품에 대한 평가의 고저에 따라서 시론을 대하는 관점이 결정된다고 유추할 수 있다. 시론 논의는 항상 김춘수 문학에 동의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와 관련된다.

김춘수 시의 상호텍스트적 읽기는 주로 김수영과의 대비적 관점이 주

38) 황동규, 「감상과 제어와 방임 - 김춘수의 시세계」, 『창작과 비평』45, 1977.

39) 최라영, 앞의 글.

40) 최라영, 앞의 글, 45~56쪽 참조.

41) 김춘수의 시와 시론은 양자가 괴리를 보이는 대표적인 예에 해당한다(권혁웅, 『한국 현대시의 시작방법 연구』, 깊은샘, 2001, 61쪽).

김춘수 문학은 시와 시론이 매우 조화롭게 결합된 바람직한 예로 꼽힌다(권영민, 「인식으로서의 시와 시에 대한 인식」, 『세계의 문학』, 1982년 겨울, 212쪽).

를 이루고 있다. 두 사람의 대비는 모더니즘 대 리얼리즘이라는 해방 이후 한국문단을 이끌었던 양 축을 동시에 구축할 수 있기 때문에 문학사의 전체성을 검토할 수 있다는 용이성이 있다. 최근에는 양자의 차이와 대립보다는 동일한 시대를 통과했던 두 시인의 공통성을 확인하려는 연구가 양산되고 있다. 조강석⁴²⁾은 길항적 관계에 놓였던 김수영과 김춘수의 대비적 논의를 지양하여 양자의 동질성에 착목하고 있다. 두 시인의 시학은 상호배제적인 두 개의 실체가 아니라 하나의 실체로부터 비롯된 두 개의 양태로 읽혀야 한다는 것이다. 현대시의 존재양식과 존재의의에 대한 이들의 사유의 근저에는 현실을 재현하거나 지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인식, 자연이나 종교 등의 선험적 세계가 더 이상 인간의 상처를 치유할 수 없다는 인식이 기반하고 있다. 두 시인의 시세계는 초월적 대상과의 부단한 동일시를 도모하지 않는다는 면에서 공통점을 지닌다.

박은희⁴³⁾는 김종삼과 김춘수 시의 모더니티를 시간의식을 중심으로 연구한다. 두 시인의 시 의식의 기반에는 사회역사적 모더니티의 일직선적 시간관에 대한 부정이 자리하고 있으며, 그 시간의식은 미적 모더니티의 특수성 내에 위치하는 것으로 파악한다. 그들은 공통적으로 허무의식을 기반으로 근대적 시간의 불모성과 고착성을 극복함으로써 세계에 대면한 자아의 결핍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이은실⁴⁴⁾ 모더니즘의 역사적인 성립배경과 동시대적인 철학·문화·사회·미학적인 성향을 간파하여 김수영과 김춘수 시의 정체성을 규명한다. 자유와 창조를 향한 두 시인의 실천의지는 그들의 시에서 모더니티를 향한 출발점이자 중심축이 되면서 모더니티의 구체적 과정을 보여주는 세 가지 측면으로 나타난다. 첫째 주체의 양상 측면에서 세계와의 철저한 거리두기를 실현하는 김춘수의 절대 순결성을 향한 미학은 주체의 결벽적인 자유의지의 실천을 향한 방법론이 된다. 이에 반하여 김수영의 시의

42) 조강석, 「비화해적 가상으로서의 김수영과 김춘수 시학 연구」, 연세대 박사, 2008.

43) 박은희, 「김종삼·김춘수 시의 모더니티 연구: 시간의식을 중심으로」, 성신여대 박사, 2003.

44) 이은실, 「김춘수와 김수영 시의 모더니티 비교연구」, 부경대 박사, 2008.

반란성은 변화와 변혁을 향한 과감한 행동으로 시작된다. 둘째 세계인식의 측면에서 두 시인은 공통적으로 세계를 부정적으로 인식하지만 그에 따른 대응방식은 서로 다른데, 김춘수는 존재의 유한함과 그것으로 인한 비극적 인식으로 역사적인 유한함을 벗어난 존재의 영원성을 동경하고 김수영은 궁핍하고 어두운 현실을 ‘온몸’의 시학으로 맞선다. 셋째는 시작 구성의 원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모더니티의 양상이다. 김춘수는 내용이나 의미의 전달을 위한 일상적 차원의 언어가 아니라 하나의 사물처럼 시각화하여 언어를 보여준다. 따라서 언어는 의미가 아니라 이미지 자체가 목적이 된다. 김수영에게 시는 표현형식의 차원이라기보다는 현실을 인식하고 토로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유의 장으로 인식된다.

김의수⁴⁵⁾는 혼성모방, 자기표절 등의 메타성, 타 장르를 시적 문맥에 맞게 수용하는 개방된 창작방법론, ‘예수·처용·이중섭’ 등과 관련된 일종의 전기적 서술과 설화수용 양식, 릴케·말라르메·샤르트르·발레리 등 외국문학과의 영향관계, 한국 현대문학 계보에서의 시인의 위치 등을 다각적으로 탐구하면서 김춘수 시의 상호텍스트성을 총체적으로 규명하고 있다. 자기 텍스트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단어 및 어구들의 중복과 인용을 ‘열림’과 ‘조응(correspondence)’의 현상으로 파악하고 이러한 내부 지시성이 ‘방사’, ‘확산’, ‘누적’, ‘집중’이라는 미학적 효과를 창출하고 있음을 논증하였다. 한편 상호텍스트성의 범위가 다수의 선조 시인들의 텍스트까지로 향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시적 ‘영향’과 ‘포용’의 관계까지를 폭넓게 고찰하였다.

이민호⁴⁶⁾는 전후에 창작된 현대시의 전반적인 세계인식을 ‘불확정성’으로 진단하고 김춘수와 김수영과 김종삼의 시를 담화론적인 측면에서 분석한다. 각 시인들은 전후의 억압적인 현실에서 야기된 주체의 위기를 현실에 대한 부정과 허무와 부재의식으로 저항하고 쇄신하려고 한다. 김

45) 김의수, 「김춘수 시의 상호텍스트성 연구」, 서울대 박사, 2002.

46) 이민호, 「현대시의 담화론적 연구 - 김수영 · 김춘수 · 김종삼의 시를 대상으로」, 서강대 박사, 2000.

춘수의 경우 통사론의 해체와 문맥적 정보의 지연을 통해서 미의식을 재구성하고 탈역사화를 추구한다. 이 때 변증법적인 역사 속의 인간은 소외와 고립을 느끼고 내면적 아름다움으로 구경 속으로 몰입해 가는 치유를 경험하게 된다.

이은정⁴⁷⁾은 김수영시와 김춘수시를 언술 양식, 상상력과 지향의식, 시적 인식과 시론의 측면에서 비교 분석하였다. 수직적 상승지향과 지상적 이미지를 배제하는 식물적 이미지와 상응을 통해 현실의 금제와 육체로 상징되는 버거움에서 벗어나려는 의식을 추구하는 김춘수의 시학은 시적 사변과 개인적 실전의 시적 형상화라는 특성으로 집약된다. 이에 반하여 김수영은 서술의 원리와 의미의 실현에 무게중심을 두는데, 개인적 역사 체험보다 공유한 체험으로서의 혁명이 그의 시적 인식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서구문학에 대한 동경과 영향에서 시창작을 출발했던 김춘수 문학은 비교문학분야에서도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김용하⁴⁸⁾는 김춘수와 릴케의 시어 '꽃'과 '천사'를 중심으로 그동안 릴케의 영향권 아래에서 파악되었던 김춘수 문학의 한계를 벗어나 김춘수 시가 지닌 독자적인 시의 생성원리인 타자성에 기반한 미적 윤리성을 해명하고 있다. 릴케가 서구의 '나르시즘'에 입각한 절대적 자아의 완성을 추구했다면 김춘수는 서구적 주체의 한계를 인식하고 주체와 객체 양자를 동시에 구제하려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김은정⁴⁹⁾은 릴케의 문학의 이입과정과 이입과정에서의 굴절현상을 반성적으로 고찰할 비교문학의 필요성을 제안하면서 논의를 전개한다. 김춘수는 초기 릴케의 존재의 의미를 밝히려는 관념론에 경도되어 창작에 임하지만 후기에 접어들면서 관념의 과잉에 대한 회의로 '무의미시'로 선회하게 된다. 그러나 릴케는 후기시에서 사물 스스로 말하도록 하는 '사물

47) 이은정, 「김춘수와 김수영 시학의 대비적 연구」, 이화여대 박사, 1993.

48) 김용하, 「언어의 위기 극복과 미적 윤리성의 발견 -김춘수와 릴케의 시어 꽃과 천사를 중심으로-」, 『어문학』82, 한국어문학회, 2003.

49) 김은정, 「김춘수와 릴케의 비교문학적 연구」, 『어문연구』32, 어문연구학회, 1999.

시'의 개념으로 나아가면서 새로운 시적 경지에 도달한다. 김은정은 릴케를 거부했던 김춘수가 우연하게도 릴케의 전철(사물시=무의미시)을 밟고 있다고 지적한다. 김은정의 이러한 논지는 전적으로 김춘수의 고백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김은정이 지적한 '우연성'에 대한 논의는 재고할 필요성이 있다. 한편 독문학 연구자로서 김재혁⁵⁰⁾은 릴케 시와의 텍스트 비교를 통해서 릴케와는 다른 김춘수 시의 시적 변용에 대해서 밝히고 있다.

학제간 연구는 이미지를 중시하는 김춘수 시의 성향을 반영하여 회화와 영상 분야에서 진행 중이다. 문장이 세계와 갖는 관계는 그림이 세계와 갖는 관계와 유사하다. 양자는 공통적으로 표현이라는 미메시스(mimesis)의 단계에서 수용이라는 세미오시스(semiosis)의 단계로 귀착된다. 이러한 메커니즘을 통해서 진수미⁵¹⁾는 김춘수 시의 변천과정(단순 모방 → 본질모방 → 모방론을 폐기하는 지점)을 회화가 구상에서 추상으로 전개되어 온 과정에 대입하여 김춘수 시의 회화성과 또한 그것을 수용하는 양상을 고찰한다.

양인경⁵²⁾은 근대 모더니즘 시(김수영, 김종삼, 김춘수) 시와 영화와의 관련성을 규명하고 있다. 모더니즘은 청각에서 시각으로의 미학사적 변천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영화와 시가 공유하고 있는 이미지즘에 기반한 수사학적인 측면에서 양자의 상호관계를 규명하고 있다. 김춘수의 경우 자기고백적인 시의 특성을 자유간접시점 쇼트를 적용하여 분석하였고 무의미시의 특성을 초현실주의 영화와 인상주의 영화의 기법을 적용해서 고찰하였다. 무의미시의 수사적 방법론인 서술적 이미지 구축을 위해서 김춘수는 형식주의 무성영화 촬영 방식인 서사적 시퀀스를 배제하고 카메라의 작동에 의해 이미지의 병치나 충돌을 통한 쇼트들만 나열하는 영

50) 김재혁, 「시적 변용의 문제」, 『독일어문학』16, 2001.

51) 진수미, 「김춘수 무의미시의 시작 방법 연구 - 회화적 방법론을 중심으로」, 서울시립대 박사, 2003.

52) 양인경, 「한국 모더니즘시의 영화적 양상 연구」, 한남대 박사, 2008.

화적 방식을 사용한다. 또한 리듬의 시각화를 위해서 초현실주의 영화나 아방가르드 영화의 방법을 사용한다. 양인경의 논의는 그동안 추상적으로만 이루어져 온 시와 영화의 관련성에 대한 논의를 실증적으로 구체화한 의의가 있으나 서정과 서사라는 장르의 근본적인 표현법의 차이와 그것이 극복되는 과정을 생략하고 있다.

종교관련 연구로는 김춘수가 자주 인용한 ‘예수’와의 관련성 아래 기독교를 중심으로 이루어 졌다. 이진홍⁵³⁾은 텍스트의 내용과 성서의 내용을 비교하면서 예수를 통해서 형상화된 시인의 내면의식을 추적하고 있다. 이민호⁵⁴⁾는 김춘수 시에서 크리스토폴 환타지가 구현되는 양상은 ‘거인 이미지’라고 말한다. 현상적 자아를 잠식하는 속죄양의 자아를 구원하기 위해서 시인은 성인의 이미지 속에 안착하려는 욕망의 소산으로 거인 이미지를 구축한다.

‘꽃’으로 지배되는 존재론적 연구는 초기 김춘수 시 연구의 중심테마였다. 최근에는 초기시에서 보이는 존재론적 탐구가 무의미시로 연결되는 의식의 기제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고 있다. 강연호⁵⁵⁾는 김춘수의 시세계가 무의미시로 급격한 변화를 일으킨 것 같아도 실제로는 일정한 ‘존재 탐구’라는 준거에 의해서 진행된다고 파악한다. 초기시에서 보이는 관념론적인 존재탐구의 경향은 무의미시에 이르러 관념에 대한 회의로 나타나고 후기시에 이르면 허무의 양태로 드러난다. 「꽃」 연작시에 드러난 현존재에 대한 갈망은 호명행위를 통해서 관계론적으로 드러난다. 이것은 유년의 체험이 투사된 것으로서 세계와의 동일시를 갈망하는 김춘수의 타자적 욕망을 암시한다. 무의미시로 전환되는 과정은 언어로 이루어진 호명으로는 세계에 대한 동일시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사물 그 자체를 드러내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 방법 역시 언어의 의미를 여전히 배제할 수 없는 한계를 드러내고 다시 의미의 세계로 돌아오게

53) 이진홍, 「김춘수의 <예수를 위한 6편의 소조> 연구」, 『논문집』11, 1997.

54) 이민호, 「전후 현대시의 크리스토폴 환타지 연구」, 『문학과종교』11, 2006.

55) 강연호, 「언어의 긴장과 존재의 탐구」, 『어문논집』33, 1994.

되는 것이다. 후기시에 보이는 허무와 절망과 슬픔의 정조는 초기시에서부터 천착해 왔던 존재탐구의 연장장선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정신분석학 연구는 김현⁵⁶⁾으로부터 출발한다. 김현은 시인의 유년 시절을 재구해서 두 가지 콤플렉스를 추적한다. 김춘수는 유년기에 두 개의 콤플렉스를 형성하게 되는데, 하나는 부유함에 대한 부끄러움이고, 다른 하나는 성에 대한 부끄러움이다. 부유함에 대한 부끄러움은 여성적 태도를 낳고, 식물적 상상력으로 예술적 등가물을 얻는다. 성에 대한 부끄러움은 거세 콤플렉스를 낳는데, 처용은 거세콤플렉스에 대한 등가적 표현이다. 이성희⁵⁷⁾는 김춘수 시의 고통과 환상의 이미지를 해부한다. ‘처용’은 김춘수의 고통을 주제로 하는 하나의 시나리오인데, 김춘수에게 고통은 해결할 수 없는 경험의 선형적 형식으로 인식된다. 고통이 해결될 수 없다는 점에서 히스테리적인 주체가 생성되고 ‘처용’을 통해서 결여가 상징화된다. 김춘수 문학의 결여는 ‘바다’라는 환상을 통해서 내면적인 회복을 이룬다.

정치사회학 연구는 매우 미진한 편이다. 이동하⁵⁸⁾는 김동리, 서정주, 김춘수 등 이념을 배제한 순수문학을 표명하는 문인들의 표리부동한 정치적 성향을 지적한다. 이들의 정치적 성향을 배제하더라도 순수문학이론이라는 문학방법론 자체가 독재정권 하에서는 분명한 이데올로기의 표현이라는 것이 이동하의 논리다. 아울러 이동하는 이들의 작품과 독재정권 속성과의 연관성을 찾는 작업을 제안한다.

엄경희⁵⁹⁾는 인공시학으로 불리는 김춘수의 시에서 반어적으로 생태주의적인 요소를 찾아내고 있다. 김춘수는 탈미메시스적 관점에서 자연을 묘사한다. 이 경우 자연은 현실 재현이 불가능한 심미성의 차원으로만 드러난다. 엄경희는 김춘수가 잃어버린 시원을 드러내는 자연적 표상에서

56) 김 현, 앞의 글.

57) 이성희, 「김춘수 시의 고통과 환상의 의미」, 『한국현대문학연구』21, 한국현대문학회, 2007.

58) 이동하, 「순수문학과 독재정권 - 김동리 · 서정주 · 김춘수의 경우」, 『대학문화』12, 서울시립대, 1989. 2.

59) 엄경희, 「김춘수의 자연시에 나타난 심미성 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25, 2004

점차적으로 인간의 개입이 없는 순수한 자연을 표상하는 시의 도정을 보여준다고 진단한다. 엄경희의 논의에서 과연 ‘자연’을 그 보다 상위 범주인 ‘사물’과 동일시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남는다. 진창영⁶⁰⁾은 서정주, 김춘수, 정일근의 시를 신라주의와 생태주의의 관점에서 논한다.

이주열⁶¹⁾은 유년의 상처와 몽상이 해학적인 처용에 상응되어 시인의 세계관을 정화한다고 한다. 이 때 처용의 성격은 한국의 전통적인 관용과 해학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이인영⁶²⁾은 무의미시 이전부터 무의미시 이후까지 김춘수 시를 관통하는 기제로 ‘허무의식’을 꼽는다. 근대의 직선적인 시간관과 미래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부정했던 김춘수는 ‘순간성’의 침탈 위에서 ‘심미성’만을 유일한 시적 구원의 방법론으로 삼는다. 이상으로 각 범주에 속한 논의들을 대략적으로 살펴보았다. 본 논의는 기존 논의에서 되풀이 되어 왔던 연구들을 생략하고 주로 최신 연구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음을 밝힌다.

3. 결 론

김춘수 시 연구는 현재에도 지속적으로 생산되고 있다. 60년대부터 이어져온 연구들은 과거의 것들을 반영하고 변증법적으로 갱신하는 과정을 통해서 학계의 최신 이론들을 김춘수 문학이라는 단일한 계열로 구축하고 있다. 본 글은 이러한 김춘수 연구 관련 연구들을 분야별로 범주화하고 소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범주화의 기준은 귀납적인 방법을 택하였고 병렬적인 기술을 하였다. 범주화를 실행함으로써 연구 현황을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구자가 제시한 ‘키워드’ 위주의 단순한 범주화를 실행하였다. 뚜렷한 기준: 정신사적인 기준, 사조별 기준, 통시적 기준(작품, 연

60) 진창영, 「현대시의 신라정신과 그 생태주의적 요소 고찰」, 『어문학』74, 2001.

61) 이주열, 「한국 현대시의 해학성 연구」, 한국외대박사, 2004.

62) 이인영, 「김춘수와 고은 시의 허무의식 연구」, 연세대박사, 1999.

구논문), 문학작품 연구기준(작가본위, 작품본위, 독자본위) 등을 적용했을 때 생기는 여러 문제점을 염두해 두었기 때문이다. 김춘수 시 연구사의 검토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작가의 전기적 연구가 전혀 진척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김현 등이 논의한 유년시절과 일본 형무소에서의 경험, 작가 본인이 시론과 대담에서 밝힌 내용들이 최근의 논문에서까지 반복 재인용 되고 있다. 생체험이 근거가 되는 정신분석학 연구가 담보상태에 직면하고 역사주의 비평이 희귀한 것은 작가의 전기적 연구가 미진한 것과 관련된다. 작가의 삶을 재구성할 수 있는 전기적 고찰이 필요하다.

둘째, 모더니즘과 리얼리즘의 대결구도가 자기반영성의 한계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다. 김현이 지적한 것처럼 우리 근대문학은 ‘착란된 풍토’에서 유입되고 성장해 왔다. 어느 한쪽도 계보의 정당성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근대성의 미학을 현재적 관점에서 다시 천착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계몽적 현대성/미적 현대성의 연속적인 징후관계에 있는 ‘탈식민주의적 관점’과 ‘포스트 모더니즘적 관점’이 상호의 영향관계를 통해서 다시금 제기되어야 할 것이다. 김춘수와 김수영 각각의 논의는 포스트 모더니즘과 탈식민주의적 관점에서 어느 정도의 진척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지만 양자의 비교적 관점은 여전히 구태의 것들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다.

셋째, 독자 본위의 연구 방법론의 부재이다. 김춘수가 천착했던 문제 중의 하나는 창작방법론이다. 물론 창작방법론에 대한 논의는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논의가 생산자 위주로 집중되고 있다. 창작은 독자의 반응 속에서 완결된다. 시인이 창작방법론을 통해서 기대하는 효과, 곧 수사학적인 장치만을 분석할 것이 아니라 예상되는 직접적인 독자의 반응을 분석하는 일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2000년대 이후의 작품까지를 망라한 종합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직 김춘수 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논문은 생산되지 않은 상황이다. 후기시를 논할 때도 2,000대 후반의 시는 간과되고 있는 실

정이다. 김춘수 시 연구의 의식의 흐름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종합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본 글은 연구들 간의 유기적인 관련성을 밝혀내지 못하고 연구사의 지적 동향을 제시하지 못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다만 후행하는 연구자들을 위한 객관적인 자료제시의형의 글이 되고 있다. 김춘수 문학 연구서를 독서하는 것만으로도 한국현대문학에 대한 최소한 상식적인 지평이 열릴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은교, 「김춘수 시의 모티브 연구」, 『현대문학의 연구』7, 1996.
- 권영민, 「인식으로서의 시와 시에 대한 인식」, 『세계의 문학』.
- 권영민, 『한국현대문학사』, 민음사, 1993.
- 권혁웅, 『한국 현대시의 시작방법 연구』, 깊은샘, 2001.
- 김 현, 「꽃의 이미지 분석」, 『문학춘추』, 1965. 2.
- _____, 「식물적 상상력의 개발」, 『현대시학』, 1970. 4.
- _____, 『상상력과 인간』, 일지사(서울), 1975.
- 김 현, 『한국문학사』, 민음사, 1973.
- 김광엽, 「한국 현대시와 공간 구조 연구: 청마와 육사, 그리고 김춘수와 김수영을 중심으로」, 서강대학 박사, 1994.
- 김두한, 「김춘수 시 연구」, 대구효성여대 박사, 1991.
- 김두한, 「김춘수 시의 회전운과 그 기능」, 『문학과 언어』7, 1986.
- 김영미, 「무의미시의 독자반응론적 연구」, 『국제어문』32, 국제어문학회, 2004.
- 김용직, 『해방기 한국 시문학사』, 민음사, 1989.
- 김용하, 「언어의 위기 극복과 미적 윤리성의 발견 -김춘수와 릴케의 시어 꽃과 천사를 중심으로-」, 『어문학』82, 한국어문학회, 2003.
- 김은정, 「김춘수와 릴케의 비교문학적 연구」, 『어문연구』32, 어문연구학회, 1999.
- 김의수, 「김춘수 시의 상호텍스트성 연구」, 서울대 박사, 2002.
- 김재혁, 「시적 변용의 문제」, 『독일어문학』16, 2001.
- 김종태, 「김춘수 처용연작의 시의식 연구」, 『우리말글』28, 우리말글학회, 2003.
- 김준오, 『한국현대문학사』, 현대문학, 1989.
- 김춘수, 「시론-시작법을 곁한」, 『시론전집』, 현대문학, 2004, 252~260쪽 참조.
- 김현자, 『시와 상상력의 구조』, 문학과 지성사, 1982.
- 남기혁, 「김춘수 전기시의 자아 인식과 미적 근대성」, 『한국시학연구』1, 1998.

- 노 철, 「김수영과 김춘수의 시작방법 연구」, 고려대 박사, 1998
- 문혜원, 「김춘수의 시와 시론에 나타나는 이미지 연구」, 『한국현대문학연구
한국의 현대문학』3, 한국현대문학회, 1994.
- 박은희, 「김종삼·김춘수 시의 모더니티 연구: 시간의식을 중심으로」, 성신
여대 박사, 2003.
- 손자희, 「김춘수 시 연구-이미지 중심으로」, 중앙대 석사, 1983.
- 송승환, 「김춘수 사물시 연구」, 중앙대 박사, 2008
- 신상철, 「김춘수의 시세계와 그 변모」, 『현대시의 연구와 비평』, 새미, 1997.
- 신정순, 「김춘수 시에 나타난 빛·물·돌의 이미지와 상상력의 질서」, 이화여대
석사, 1981
- 양인경, 「한국 모더니즘시의 영화적 양상 연구」, 한남대 박사, 2008.
- 오세영, 「김춘수의 무의미시」, 『한국현대문학연구』15, 한국현대문학회,
2004.
- 오정국, 「김춘수 시의 인물에 관한 연구(Ⅰ)」, 『어문론집』30, 중국문학회,
2002.
- 오택근, 「물의 원형상징 연구」, 『우리어문연구』12, 1999.
- 오형엽, 「김춘수와 김수영 시론 비교 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16, 2002.
- 이 찬, 「20세기 후기 한국 현대시론 연구」, 고려대 박사, 2004.
- 이기철, 「김춘수론」, 『한민족어문학 영남어문학』22, 한민족어문학회, 1992,
- 이명희, 「한국 현대시에 나타난 신화적 상상력 연구: 서정주, 박재삼, 김춘수,
전봉건을 중심으로」, 건국대 박사, 2002.
- 이민정, 「김춘수 시연구」, 경원대 박사, 2006.
- 이민호, 「전후 현대시의 크리스토폴 환타지 연구」, 『문학과종교』11, 2006.
- 이민호, 「현대시의 담화론적 연구 - 김수영 · 김춘수 · 김종삼의 시를
대상으로」, 서강대 박사, 2000.
- 이성희, 「김춘수 시의 고통과 환상의 의미」, 『한국현대문학연구』21, 한국현대
문학회, 2007.
- 이승훈, 「존재의 기호학」, 『문학사상』, , 1984. 8.
- _____, 「처용의 수난과 통사구조의 해체」, 『현대시사상』, 1992. 봄.
- _____, 「포스트모던즘의 시적 기법; 김춘수의 『처용단장』 3부와 4부를 중심

- 으로, 『모더니즘 시론』, 문예출판사, 1995.
- 이은실, 「김춘수와 김수영 시의 모더니티 비교연구」, 부경대 박사, 2008.
- 이은정, 「김춘수와 김수영 시학의 대비적 연구」, 이화여대 박사, 1993.
- 이진홍, 「김춘수의 <예수를 위한 6편의 소조> 연구」, 『논문집』11, 1997.
- 이창민, 「김춘수 시연구」, 고려대 박사, 1999.
- 정유화, 「탈이념의 자족적 폐쇄공간 - 김춘수의 <처용단장>을 중심으로-」, 『어문연구』111,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1.
- 조강석, 「비화해적 가상으로서의 김수영과 김춘수 시학 연구」, 연세대 박사, 2008.
- 진수미, 「김춘수 무의미시의 시작 방법 연구 - 회화적 방법론을 중심으로」, 서울시립대 박사, 2003.
- 진창영, 「현대시의 신라정신과 그 생태주의적 요소 고찰」, 『어문학』74, 2001.
- 최라영, 「김춘수 무의미시 연구」, 서울대 박사, 2004.
- 황동규, 「감상과 제어와 방임 - 김춘수의 시세계」, 『창작과 비평』45, 1977.

〈Abstract〉

Present condition and perspective of Kim Chun-Soo poet study

Lee, Kang-ha

Kim Chun-Soo is the one of the best poetry who achieved the excellent poetic art in the pursuit of the pure poetry for his whole life. During his life, he produced problematic discourse of Korea modern literature with participating in all part of literary genre. His literary experience proffers us the diachronic insight of which Korean poet history has been related to Western modernism, genealogy's senior or junior who he succeed to or inherit from him, unique prosody, branch and the stream of modern literary criticism.

This paper presents study history about Kim Chun-Soo's poet focusing on the recent dissertations to avoid the duplication of existing discussion. Most of all research about study history are in substantial

agreement with each other. A highly recognised critic's opinion is requoted in all dissertation. Classification(category) and period division also are all of a sort. The reason why this phenomenon is brought is Because these issues are not the significant to generally dissertation.

This paper's aim is to neutrally indicate the present condition of study about Kim Chun-Soo's poet and deduce a lacked part which exsiting dissertation is missing. I expect this paper to be a research material which following study can concul.

Key words : kim, Chun-Soo, korea modern literature korean poet history phenomenon, unique prosody

이 논문은 2009년 1월 10일에 투고되었으며, 2009년 2월 3일에 심사 완료되어 2월 10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
